

“현실성·디테일 부족” vs “반드시 지켜야”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편...카페 등 곳곳 '턱스크' 여전 미착용 땀 과태료 부과...실제 단속까지 이어질지 의문

“음료를 마시느라 고작 몇 초 착용하지 않았는데, 종업원이 자주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가 오래 앉아 있기 어렵네요.”

12일 정오에 광주시 서구 한 커피숍을 찾은 직장인 윤상은(30)씨는 커피숍을 이용하는 1시간 동안 종업원과 연신 눈치 싸움을 벌였다.

음료를 마시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고작 2-3초 가량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는데 종업원이 찾아와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면서다.

오씨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걸 알고있어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종업원이 계속 매장을 돌아다니며 정도를 넘어 지적을 하니 이해는 하지만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서 잡음이 새나왔다.

회사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게 됐다며 불만 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기존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이라도 이용객들에게 전보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축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한 공무원 A씨는 “오늘 오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사내방송이 줄곧 흘러나오고 있다”며 “업무상 전화를 할일이 많아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완벽히 지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직원 한명과 함께 고작 둘이 근무를 하는데 ‘건축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

무라는 뉴스를 접하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 싶더라”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이날 찾은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객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카페에는 이용객 8명 모두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종업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지적했음에도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 카페 운영자는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손님의 마스크 착용상태를 지적하는

경우 등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받기는 의견들도 많았다. 직장인 C씨는 “식당과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손님들을 보면 괜스리 불편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다들 좀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특수교육 및 시설 종사자들이 AZ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추진 광주 복구, 참여 업체 모집

광주시 복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1년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체 20곳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복구에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사업내용은 최대 4개월(총 8회) 동안 밀착컨설팅 후 취약부문에 대해 광고비,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안전·위생설비 설치, 실내외 간판교체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서민금융진흥원 전문컨설턴트와 복구청 사후관리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행단이 경영진단, 맞춤형방, 점검·지도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참여자 선정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복구 창업교육 및 종합 컨설팅 참여 소상공인과 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우대된다. 참여 신청은 복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04년 이전 퇴직공무원

광주교육청, 인사기록 전산화

광주시교육청이 시 교육청 기록관에 보유중인 퇴직공무원의 비전자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전산화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 기록관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캐비닛에 산재해 있는 2004년 이전 퇴직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집 정리해 약 2만 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산화 구축은 4-6월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 기록물을 정리, 분류, 스캐닝 및 보정 작업 등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에 탑재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경력증명서를 발급 처리할 수 있어 민원 업무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민원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양자컴퓨터 내성 보안기술 개발 ‘속도’

75억 ‘포스트 양자암호’ 사업 선정

슈퍼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진 양자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양자컴퓨터에서도 쉽게 해독되지 않는 ‘포스트 양자 암호’(PQC)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12일 조선대에 따르면 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김영식 교수 연구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저차양 디바이스 대상 고효율 PQC 안전성 및 성능 검증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로 선정됐

다. 연구기간은 3년 9개월 동안이며, 총 7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해독할 수 없는 암호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연산능력을 가진 컴퓨터이다. Google, MS, Intel, IBM 등 대표적인 IT 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양자 컴퓨터 구현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결제나 인증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가 10년 이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IT보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 연산에서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암호 기술을 양자내성암호 또는 양자 컴퓨터 이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라는 의미의 포스트 양자 암호(Post Quantum Cryptography)라 한다.

조선대학교의 이번 연구는 양자 컴퓨터 연산에도 쉽게 해독되지 않는 안전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 양자 내성 암호(PQC) 후보들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구현 개발하는 연구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가 대안학교 복지 확대 전남교육청, 조·석식비 지원

전남교육청이 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 지역 인가(학력 인정) 대안학교는 총 4곳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들 중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조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 한 해 소요 예산은 2억원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지원 대상 수요를 파악, 올해 새학기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가 대안학교 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조·석식비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라고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위기청년 1인 가구에 광주 동구, 식사권 제공

광주시 동구가 위기청년 1인 가구에 식사권을 보장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푸드’ 3차 지원에 나선다. 동구는 이번 3차 지원 사업은 기본요건을 갖춘 청년 1인 가구 중 신청순 30명을 선발해 이달 말부터 개인별로 격주 1회씩 최대 6회 동안 반찬과 식재료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융고회관

MG새마을금융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융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